

생디칼리즘의 국제적 비교연구*

이 용 재

- I. 머리말: 혁명적 생디칼리즘
- II. 생디칼리즘의 국제적 차원
- III. 생디칼리즘의 이론과 실제
- IV. 생디칼리즘의 조직과 구성
- V. 맺음말

I. 머리말: 혁명적 생디칼리즘

서구 노동운동사에서 19세기말-20세기초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급진적 노동운동 세력이 총파업 깃발을 휘날리며 자본주의 타도와 노동의 해방을 외쳤던 이른바 “생디칼리즘의 영웅시대”¹⁾로 불린다. (혁명적) 생디칼리즘(Revolutionary Syndicalism)은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을 통해 임노동 체제를 타파하고 노동조합이 주축을 이루는 생산자 중심 사회를 건설한다는 자못 원대한 목표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서구 노동운동사에 나타난 가장 급진적인 노선이라고 할만하다.²⁾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32-A00029).

1) E. Dolléans, *Histoire du mouvement ouvrier*, t. II(1871-1920)(Armand Colin, 1967), p. 87.
 2) 프랑스어 생디칼리즘(syndicalisme)은 생디카(syndicat)에서 나온 말이다. 원래 생디카는 한 마을이나 공동체의 공동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조직한 집단을 의미했는데, 19세기 중엽부터 주로 노사관계를 일컬을 때 사용되었다. 생디카 또는 샹브르 생디칼(Chambre syndicale)은 노동자 단체든 고용주 단체든 법적 대표성을 지닌 ‘조합’ 모두를 지칭할 수 있었으나 주로 ‘노동조합’을 뜻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생디칼리즘은 우선 노동자들의 조합 활동 일반을 일컫는 용어로서 노선에 따라 혁명적 생디칼리즘과 개량적 생디칼리즘으로 나뉠 수 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노동운동을 이끈 CGT가 ‘혁명적’ 생디칼리즘의 아성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20세기

생디칼리즘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에 의한 노동의 해방’이라는 기본 원칙에서 출발한다. 생디칼리즘 운동은 의회선거와 정당정치 등 정치투쟁보다는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경제투쟁을 우선시하고, 국가기구든 사회주의 정당이든 ‘외부’세력이 노동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며, 총파업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하고 생산자 중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생디칼리즘은 흔히 개량적 노동운동을 지칭하는 영·미식 ‘트래드유니언리즘(trade-unionism)’이나 사회주의 정당이 노동운동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독일식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혁명적 생디칼리즘은 19세기말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뿌리내린 후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전성기를 누렸으며 곧 유럽 전역과 아메리카 대륙으로까지 확산되었다. 20세기 초반에 범세계적으로 선보인 혁명적 생디칼리즘 운동은 때로는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때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라와 지역에 따라 ‘신디칼리즘(Syndicalism)’, ‘아나르코생디칼리즘(Anarchosyndicalisme)’, ‘혁명적 조합주의(Revolutionary Unionism)’, ‘산업조합주의(Industrial Unionism)’, 심지어 ‘단일거대노동주의(One Big Unionism)’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다.³⁾

초반에 기존의 개량적 노동운동과 결별하고 급진적 투쟁을 내세운 내건 영·미권의 노동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노선이 프랑스어에서 차용한 ‘신디칼리즘’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미권에서 신디칼리즘은 흔히 개량적 노동운동을 뜻하는 트래드유니언리즘(trade-unionism: 노동조합주의)과는 구별되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cf. V. R. Lorwin, “Syndicalism,” D.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v. 15 (McMillan Co. & The Free Press, 1980), pp. 447-451. 생디칼리즘에 대한 국내의 개략적인 소개로는 신행선, 『생디칼리즘』, 김영한 편, 『서양의 지적운동』 제1권(지식산업사, 1998)을 참조하라.

3) 20세기 초 생디칼리즘 운동은 범세계적인 현상이었으나 각국의 고유 여건에 접목되면서 다양한 편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Conlin은 미국의 IWW(세계산업노동자)가 조직과 투쟁의 기본 원칙으로 천명한 ‘산업조합주의(Industrial Unionism)’를 ‘생디칼리즘’과 동일시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J. Conlin, *Bread and Roses Too, Studies of the Wobblies*(Greenwood Press, 1970), pp. 11-13. 한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의 사례를 비교·연구한 Peterson은 20세기 초의 급진 노동운동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생디칼리즘’보다는 ‘혁명적 산업노동주의(Revolutionary Industrial Unionism)’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L. Peterson, “The One Big Un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Revolutionary Industrial Unionism 1900-1925,” J. E. Cronin & C. Siriani(ed.), *Work, Community and Power, the Experience of Labor*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전성기를 누린 생디칼리즘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어 노동운동이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하자 급속하게 세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대다수 관찰자들은 생디칼리즘을 이미 생명력을 잃은 노동운동 노선으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하곤 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급진적인 노동운동 노선이 20세기 후반에도 만만찮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자면 1960년대 미국에서의 흑인노동자 운동이나 1968년 프랑스의 노동자 총파업 등은 생디칼리즘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1980년대 초 폴란드에서의 자유노조 운동, 1990년대 초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파업 물결에서도 생디칼리즘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⁴⁾ 노동운동이 체제 내에 순치되어 제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존 노동운동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회의가 늘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생디칼리즘이 남긴 유산을 되찾고 그 추동력을 되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⁵⁾

오늘날 노동운동사, 특히 생디칼리즘 운동사가 예전만큼 연구자들의 열정과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노동의 세기’가 역사의 뒤꼍으로 저물어 가고 노동운동이 더 이상 역사를 견인하는 추동력을 발휘하기 힘들어 보이는 현대 사회의 추이가 역사 연구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⁶⁾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각국별 생디칼리즘에 대한 개별 연구가 방대한 연구문헌을 누적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에 도달한 후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학문적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노동운동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일단의 연구자들은 노동운동의 국제적 차원, 즉 노동운동사의 탈국가적(transnational) 비교연구로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 이

in Europe and America, 1900-1925(Temple Univ. Press, 1983), pp. 64-66. 하지만 당시에 국내외적으로 가장 널리 쓰인 용어가 ‘생디칼리즘’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20세기 초의 급진 노동운동을 생디칼리즘으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R. Darlington, *Revolutionary Syndicalism: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alford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 of Salford, 2001), pp. 3-4.

5) D. Howell, “Taking Syndicalism Seriously,” *Socialist History*, n. 16(2000), p. 46.

6) 노동운동의 ‘몰락’과 ‘위기’를 진단하는 국내의 개설서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헬가 그레빙·토머스 마이어, 『유럽 노동운동은 끝났는가』, 정병기 옮김(노동자신문출판국, 1994); 에릭 홉스봄 외, 『노동의 세기, 실패한 프로젝트?』, 임지현 역(삼인, 2000).

러한 국제적 비교사 연구는 최근에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해지고 노동 시장이 국경을 넘어 다변화되는 범세계적 추세와 맞물려 자못 굵직한 성과와 신선한 자극을 낳고 있다.

20세기 초의 생디칼리즘 운동은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서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발생한 범세계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국가간 비교연구의 가장 적합한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생디칼리즘 비교연구에 첫 삽을 뜬 조르주 오프트(G. Haupt)나 페터 쇠틀러(P. Schöttler)는 “연구사의 부재”를 아쉬워하면서 국제적 “협동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했다.⁷⁾ 사실 생디칼리즘 비교사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에 능숙해야하는 학문적 어려움 탓에 연구자들이 선뜻 접근하기에는 만만찮은 과제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이후 생디칼리즘에 대한 국제적 협동연구의 성과물이 하나둘씩 늘어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⁸⁾ 생디칼리즘이 국경을 넘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탈국가적 운동이었던 만큼, 생디칼리즘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일국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비교연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취지이다. 이 글은 생디칼리즘 비교 연구의 최근 성과를 바탕으로

7) G. Haupt, “Dimension internationale du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les rapports avec la Seconde Internationale,” *Ricerche Storiche*, Anno 11, n. 1(gennais-aprile 1981), p. 12. P. Schöttler, “Syndikalismus in der europäischen Arbeiterbewegung, Neuere Forschungen in Frankreich, England und Deutschland,” K. Tenfelde (ed.), *Arbeiter und Arbeiterbewegung im Vergleich*(München: R. Oldenbourg Verlag, 1986), p. 59.

8) 생디칼리즘 비교사는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특히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M. Van der Linden & W. Thorpe(ed.), *Revolutionary Syndicalis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Aldershot, 1990); M. Antonioli et al., *De l'Histoire du mouvement ouvrier révolutionnaire*(Editions CNT-RP, 2001); R. Darlington, *Syndicalism and the Transition to Communism,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Ashgate, 2008); W. Thorpe, *The Workers Themselves: Revolutionary Syndicalism and International Labor 1913-1923*(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9); M. Van der Linden & W. Thorpe, “Essor et déclin du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Le Mouvement social*, n. 159(avril-juin 1992); M. Van der Linden, “Second Thought on Revolutionary Syndicalism,” *Labour History Review*, n. 63(1998); W. Thorpe, “Une famille agitée, le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en Europe de la charte d'Amiens à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Mil Neuf Cent*, n. 24(2006).

생디칼리즘 운동의 이념과 실재를 비교사적 차원에서 구명해보려는 시론에 지나지 않는다.

II. 생디칼리즘의 국제적 차원

1. 생디칼리즘의 성쇠

생디칼리즘은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 노동운동이었다. 생디칼리즘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전에 그 발원지인 프랑스를 넘어서 우선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 라틴 국가들에 침투해 사회주의 운동의 지형을 바꾸어놓기 시작했다. 다음에 생디칼리즘은 네덜란드를 필두로 독일, 스웨덴 등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강한 중·북부 유럽에 파고들었으며, 개량적 노동운동의 거점 구실을 하던 영국에서도 1910년대 초 ‘노동 동요 (labour unrest)’ 시기에 생디칼리즘식 투쟁방식이 도입되었다. 나아가 미국 서부 지역에서 싹튼 생디칼리즘 운동은 프랑스나 영국의 생디칼리즘 기구들과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캐나다와 남미 대륙으로 전파되었으며 멀리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각국을 대표하는 생디칼리즘 노동조직은 다음과 같다.

<각국 생디칼리즘 노조연합>⁹⁾

국가	주요 기구	창립	전성기	전성기 이후 변화
프랑스	노동총동맹 CGT <i>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i>	1895	1910-11	1914년 이후 서서히 개량주의로 변화
이탈리아	이탈리아노조연합 USI <i>Unione Sindacale Italiana</i>	1912	1919-20	파시즘에 의해 흡수 또는 해체
에스파냐	전국노동동맹 CNT <i>Confederación Nacional del Trabajo</i>	1911	1936-37	프랑코 독재정권에 의해 해체, 1936
포르투갈	노동총동맹 CGT <i>Confederação Geral do Trabalho</i>	1919	1919-20	살라자르 독재정권에 의해 해체, 1932
영국	산업신디칼리즘 교육동맹 ISEL <i>Industrial Syndicalist Education League</i> (선전연락기구, 기성노조 침투전략)	1910	1910-14	소수파, 주변화, 흡수 통합
독일	노동조합자유연맹 FVdG <i>Freie Vereinigung deutscher Gewerkschaften</i> 독일노동자자유연합 FAUD <i>Freie Arbeiter-Union Deutschlands</i>	1897 1919	1919-20	나치정권에 의해 해체, 1933
네덜란드	전국노동자사무국 NAS <i>Nationaal Arbeids Secretariaat</i>	1893	1920	나치정권에 의해 해체, 1940
스웨덴	스웨덴 중앙노동조직 SAC <i>Sveriges Arbetares Centralorganisation</i>	1910	1924-34	1954년 이후 주변화, 국가와 협조
미국	세계산업노동자 IWW <i>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i>	1905	1916-17	소수파, 1930년대 사실상 와해
캐나다	단일거대조합 OBU <i>One Big Union</i>	1919	1919-20	캐나다노동대회에 흡수 통합, 1956

9) 이 도표는 다음 글에 실린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M. Van der Linden & W. Thorpe, “Essor et déclin du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pp.9-12. 이 논문

위의 표를 통해 생디칼리즘 운동의 성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생디칼리즘은 주로 1900년에서 1940년에 이르는 20세기 상반기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가맹 조합원 수로 판단해 볼 때 1910년부터 1920년까지 전성기를 구가했다. 예외적으로 스웨덴과 에스파냐만이 1920년대 이후에 뒤늦게 전성기를 누렸을 따름이다. 프랑스(CGT), 에스파냐(CNT), 포르투갈(CGT)의 생디칼리즘은 전성기 때에 각각 자국의 노동운동권에서 상대적 온건파들을 물리치고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특히 프랑스의 CGT는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노동운동의 다수파를 이룬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생디칼리즘의 종주국으로서의 고전적 모델 구실을 한다.

생디칼리즘의 성공 여부는 각국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수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생디칼리즘은 계급혁명의 깃발이 나부끼던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사회 변혁기에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에스파냐의 CNT는 인민전선 정부와 프랑코 군사정부 사이에 내란이 벌어진 1936-37년에 노동자계급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혁명과 사회적 소요의 열기가 가라앉고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들면 생디칼리즘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잃고 노동운동권 내부에서 소수파로 머물렀다.

생디칼리즘은 몇몇 나라들의 경우 자국 특유의 정치 상황이나 노동시장 변화와 맞물려, 특히 1920년대 초부터 더 강한 대안 경쟁세력과의 이념 투쟁에 밀리면서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다.¹⁰⁾ 예컨대 이미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참전 문제를 두고 심각한 내분을 겪은 프랑스의 CGT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가치를 내건 국제 공산주의의 거친 물결에 휩쓸려 다시 분열되었다. 사회주의 세력이 기존 사회당과 신생 공산당으로 양분되는 격동기에 CGT는 '정당으로

문에서는 편의상 생디칼리즘 운동이 활발했던 유럽과 북미의 대표적인 국가들만을 다룬다. 하지만 남미와 태평양 지역도 생디칼리즘의 영향권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멕시코: 세계노동거래소(Casa del Obrero Mundial, COM), 아르헨티나: 지역노동연합(Federación Obrera Regional Argentina, FORA), 우루과이: 지역노동연합(Federación Obrera Regional Uruguaya), 노르웨이: 저항노조(Norske Fagopposisjon), 오스트레일리아: 세계산업노동자(IWW-Australia), 칠레: 세계산업노동자(IWW-Chile), 뉴질랜드: 노동연맹(Federation of Labour), 남아프리카: 산업노동자단(Industrial Workers of Africa).

10) M. Van der Linden, "Second Thought on Revolutionary Syndicalism," pp. 190-191.

부터의 독립'을 내세우던 기존 노선을 뒤로하고 1921년에 친사회당 계열의 CGT와 친공산당 계열의 CGTU(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Unitaire, 통일노동총동맹)로 분열되었다. CGTU에 가입한 노조들이 공산주의 노동조직으로 흡수된 반면, CGT는 노동운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을 지지하기는 했으나 서서히 개량주의의 길로 나아갔다.

반면에 이탈리아의 생디칼리즘이 와해된 데에는 파시즘의 흡입력이 강하게 작용했다. 1922년에 권좌에 오른 무솔리니는 국가의 경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용주 단체와 노동자 조직을 뒤섞은 전국직종연합을 조직하고 때로는 물질적 지원을 담보로 때로는 폭력을 동원해 모든 노동조직들을 강제로 편입시켰다. 노동 대중의 대다수가 파시즘의 자기장에 끌려드는 가운데, 거물급 생디칼리스트들 중 상당수는 파시스트의 대오에 합류하는 길을 택했다. '극좌' 생디칼리즘이 '극우' 파시즘으로 흡수된 것이다.¹¹⁾

1930년대 파시즘 독재정권의 대두는 생디칼리즘은 물론이고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나치 일당독재를 확립한 히틀러는 1933년에 FAUD를 포함한 모든 반체제 노동세력을 강제 해산시켰으며, 네덜란드의 NAS 역시 나치 정권에 의해 해체되었다. 생디칼리스트 잔존 세력은 지하에서 반(反)나치 저항운동에 가담했다. 에스파냐 내전 때 프랑코의 군사 쿠데타에 맞서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선봉에 섰던 CNT는 패전 후 프랑코 정권의 가혹한 탄압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포르투갈의 CGT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다.

1930년대에 국가 권력의 가혹한 탄압에 의해 몇몇 국가에서 이미 와해된 생디칼리즘 운동이 1940년대 이후에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된 근본 원인은 아마도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자들 역시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사회 안에 통합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내놓은 사회입법과 복지정책은 노동운동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커다란 유인을 제공했다. 흔히 '영광의 30년'으로 불리는 경제호황의 물결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생디칼리즘의 슬로건은 노동자들에게 예전

11) 이탈리아 생디칼리즘과 파시즘 사이의 삼투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T. Abse, "Syndicalism and the Origins of Italian Fascism," *Historical Journal*, v. 25(1982); D. Roberts, *Syndicalist Tradition and Italian Fascism*(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9.

만큼 큰 설득력을 발휘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복지국가의 발전과 노동 조건의 변화에 따라 더욱 주변화된 생디칼리즘 운동은 결국 세 가지 기로에 섰다.¹²⁾ 생디칼리즘은 미국의 IWW처럼 끝까지 기존 노선을 고수하면서 주변 세력으로 몰락하거나, 프랑스의 CGT나 스웨덴의 SAC처럼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면서 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개량화의 길을 밟거나, 아니면 영국, 캐나다의 경우처럼 다수와 온건 조직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다.

2. 생디칼리즘의 전파

생디칼리즘 운동의 국제성은 그것이 세계 각국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펼쳐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각국 운동가들과 조직들 사이에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개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미국에서 생디칼리즘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닦은 얼 포드(E. Ford)와 윌리엄 포스터(W. Foster)가 “생디칼리즘은 프랑스에서 탄생한 것이다.”¹³⁾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의 생디칼리스트들은 자신들이 주창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이 적어도 이론적 차원에서 프랑스에서 발원한 것이며 프랑스로부터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실로 국제 도시 파리는 19세기 말에 “혁명적 생디칼리즘의 메카” 구실을 했다.¹⁴⁾ 파리를 중심으로 한 생디칼리즘의 전파는 우선 직접적으로 운동가들과 조직들 사이의 공식·비공식 접촉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다.

네덜란드가 ‘생디칼리즘의 종주국’ 프랑스보다 오히려 앞서 생디칼리즘과 유사한 노선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1890년대 초에 파리를 오가며 페르낭 펠루티에(F. Pelloutier) 등 프랑스의 저명한 초기 생디칼리스트들과 교류한 코르넬리센(Ch. Cornelissen)의 활약 덕이었다. 네덜란드 최초의 생디칼리즘 기구 NAS(1893)를 창건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 코르넬리센은 1898년부터 파리에 상주하면서 프랑스 생디칼리즘 이론을 본국에 적극 도입하는 한편, NAS와 CGT 사이의 교류를 유지하는 데 힘썼다. 그는 CGT의 공식 기관지 ‘생디

12) M. Van der Linden & W. Thorpe, “Essor et déclin du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p. 31.

13) E. Ford & W. Foster, *Syndicalism*(Charles Kerr Publishing Company, 1990 [1912]), p. 5.

14) W. Thorpe, “Une famille agitée, le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en Europe,” p. 124.

칼리즘 투쟁(*Bataille syndicaliste*)과 「인민의 목소리(*Voix du peuple*)」에 각국 노동운동의 현황을 전하는 고정 칼럼리스트로 활약했으며, 「생디칼리스트운동 국제회보(*Bulletin international du mouvement syndicaliste*)」를 창간하여 생디칼리즘의 국제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앞장섰다. “스칸디나비아의 가장 유능한 생디칼리스트 저술가”¹⁵⁾로 평가받는 알베르트 얀센(A. Jansen)은 스웨덴에서 생디칼리즘 노조연맹 SAC가 결성된 1910년을 전후해서 여러 차례 파리를 방문하고 CGT 운동가들과 접촉을 유지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에스파냐와 이탈리아의 생디칼리스트들은 수시로 파리를 드나들며 CGT 지도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노선과 전략을 조율했다.

영국의 생디칼리즘을 이끈 톰 만(T. Mann)과 기 보우만(G. Bowman)은 1910년에 생디칼리즘 연락기구인 ISEL(Industrial Syndicalist Education League)을 조직하기에 앞서 파리를 방문하고 CGT 인사들과 의견을 나누었다.¹⁶⁾ ISEL이 ‘산업(industrial)’과 ‘생디칼리즘(syndicalist)’의 호칭을 대담하게 내건 것은 새로운 급진적 노동운동이 프랑스의 생디칼리즘뿐만 아니라 미국 IWW의 산업조합주의(Industrial Unionism)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드러내준다. 1913년에 미국을 방문한 톰 만은 IWW의 후견 아래 5개월 동안 전국 70여개 도시를 순회하며 선전 활동을 벌였다.¹⁷⁾ 그런가 하면 IWW의 지도자 윌리엄 헤이우드(W. Haywood, Big Bill)는 1910년대에 여러 차례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하고 생디칼리스트들과 접촉했으며, IWW에서 이탈한 윌리엄 포스터 역시 북미신디칼리스트동맹(Syndicalist League of North America)이라는 군소 대항 조직을 결성하기 전에 6개월 동안 프랑스에 머물면서 CGT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이론적인 지반을 다졌다.

각국의 생디칼리즘 운동에 이론적 준거를 제공한 것은 물론 프랑스였다. CGT의 전성기를 이끈 서기장 빅톨 그리뤼엘(V. Griffuelhes)과 부서기장으로 기관지 「인민의 목소리」의 편집을 맡은 에밀 푸제(E. Pouget)는 유럽 노동운동 무대에서 거물급 연사였으며, 1909년 이후 CGT의 정체성 위기에 맞서 ‘생디칼리즘의 쇄신’을 내건 피에르 모나트(P. Monatte) 등 젊은 운동가들이 만든 격주간지 「노동의 삶(*La Vie ouvrière*)」(1909-1914)은 생디칼리즘 운

15) *Ibid.*, p. 126.

16) T. Mann, *Tom Mann's Memoirs*(Spokemanbooks, 2002[1923]), p. 203.

17) J. White, *Tom Mann*(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1), p. 185.

등의 국제적 토론마당 구실을 했다.¹⁸⁾ 프랑스 생디칼리스트들의 영향력은 관련 저서와 문헌들의 해외 번역출판에서도 확인된다. 푸제, 그뤼피엘, 이브토(G. Yvetot), 델살(H. Delesalle) 등이 작성한 선진 책자들은 영어와 독일어는 물론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심지어 스웨덴어로 출판되었다. 각국의 생디칼리스트들은 프랑스 동료들의 저술을 직접 번역하고 소개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국의 실정에 맞는 투쟁 전략을 개발하기에 힘썼다.¹⁹⁾

생디칼리즘이 프랑스에서 출발했으며 각국의 생디칼리즘 운동이 프랑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은 각국의 다수와 경쟁 조직, 특히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노동 조직들에게 생디칼리즘을 비난하는 알맞은 빌미를 제공했다. 에스파냐에서 사회당 계열의 노동조직인 UGT(*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 노동자일반연합)는 “CNT가 프랑스에서 부정적인 요소들만을,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이론만을 수입했다.”라고 비난을 퍼부었으며,²⁰⁾ 이탈리아의 다수와 노동조직인 사회당 계열의 CGL(*Confederazione Generale del Lavoro*, 노동총동맹)은 “프랑스 유행을 탐닉하는...” USI의 “독단적 모방 정신”을 힐난했다.²¹⁾ 영국의 사회주의자 램지 맥도널드(R. MacDonald)와 필립 스노우든(Ph. Snowden)은 일반 독자들에게 생디칼리즘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외국에서 수입된 이론일 뿐 영국에서는 뿌리내리기 힘들다고 서둘러 결론지었다.²²⁾ 20세기 초 유럽 사회운동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한 독일 사회

18) C. Chambelland, “La Vie ouvrière(1909-1914),” *Cahiers Georges Sorel*, v. 5, n. 5(1987), p. 91.

19) 예컨대 영국의 Tom Mann은 프랑스 생디칼리스트 E. Pouget와 E. Pataud가 쓴 *Comment nous ferons la révolution?*(1911)의 영어판 번역서 *Syndicalism and Cooperative Commonwealth: How we shall bring about the revolution*(1913)에 머리말을 썼으며, 이탈리아 생디칼리스트 Armando Borghi는 Pelloutier의 글을 번역한 *Fernand Pelloutier nel sindacalismo francese: e in Italia?*(1913)를 내놓았다. 가장 널리 번역된 것은 Pouget의 *Le Sabotage*(1909)였다. IWW의 활동가 Arturo Giovannitti는 1913년에 영역판 *Sabotage*(Charles Kerr & Co.)를 내놓았으며, Elizabeth Flynn 역시 Pouget의 책을 바탕으로 *Sabotage: The Conscious Withdrawal of Workers' Industrial Efficiency*(IWW Publishing Bureau, 1915)를 썼다.

20) *La Justicia social*, 10 juiin 1911. A. Balcells, “Mouvement ouvrier et question nationale catalane de 1907 à 1936,” *Le Mouvement social*, n.128(juillet-septembre 1984), p. 63에서 재인용.

21) A. De Ambris, “Lettres d'Italie,” *La Vie ouvrière*, 05 septembre 1913, p. 264.

학자 쾰바르트(W. Sombart)도 생디칼리즘의 놀라운 대두에 주목하면서도 “새로운 이론은 프랑스에서 나왔으며,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 다른 토양에서는 발전하지 못한 프랑스적 현상”이라고 단정했다.²³⁾

따라서 각국의 생디칼리스트들은 새로운 노동운동이 프랑스에서 건너온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국 노동자가 처한 상황에도 잘 부합된다는 반론으로 맞섰다. 영국에 생디칼리즘을 도입한 톰 만은 영국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생소한 단어인 「산업 신디칼리스트(*Industrial Syndicalist*)」라는 기관지를 내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달아야 했다.

이제 프랑스인들의 방식이나 다른 어떤 방법을 가까이서 모방하지 않고서도, 전반적으로 프랑스식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잘 들어맞는다고 나는 믿는다. 프랑스인의 기질이 우리 영국인의 기질과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의 이해관계는 우리의 이해관계와 조금도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의 적은 바로 우리의 적, 즉 자본주의 체제이니 말이다.²⁴⁾

미국 사회주의자 로버트 라몬테(R. R. LaMonte) 역시 IWW 창립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수입 용어에 대한 주저와 편견을 바로잡기에 애써야 했다.

혁명 의지의 이 살아있는 정신은 프랑스와 영국의 생디칼리즘과 미국의 산업 조합주의를 그 겉모습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결합시킨다. 밑에 깔려 있는 이 동질성을 무시하거나 앞잡아보는 것은 명쾌한 사유를 멍청한 혼동으로 대체하는 일이다.²⁵⁾

각국 생디칼리즘 조직들은 자국 내에서 급진적 소수파로 머물러 있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생디칼리스트들은 1913년과 1922년에 ‘생디칼리즘 인터내셔널(Internationale syndicaliste)’을

22) R. MacDonald, *Syndicalism, A Critical Examination*(Constable & CO., 1912); Ph. Snowden, *Socialism and Syndicalism*(Collins, 1914).

23) W. Sombart, *Socialism and the Social Movement*(E. P. Dutton & Co., 1909), p. 110(orig. *Sozialismus und Soziale Bewegung*, 1908).

24) T. Mann, “Prepare for Action,” *The Industrial Syndicalist*, v. 1, n. 1(July 1910), (published by Spokesman Books, 1974), p. 17.

25) R. R. LaMonte, “Industrial Unionism and Syndicalism,” *New Review*(May, 1913), p. 527.

개최하고 국제적 단합을 과시하고 공동 행동을 모색했다. 생디칼리즘 인터내셔널은 각국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개량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노동조직들의 국제 협력기구로 이미 1901년에 성립한 노동조합국제사무국(IS, International Secretariat of National Trade Union Centers)에 맞붙을 놓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디칼리즘 국제기구는 사실상 원리와 노선을 천명하는 데 머물렀을 뿐, 실질적인 공동 강령과 연합 행동을 내놓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단명한 실험으로 끝나고 말았다.²⁶⁾

생디칼리즘 국제기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일반 노동자들의 국제적 이동과 정착은 생디칼리즘이 널리 전파되고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하부 구조를 형성했다. 20세기 초반에 자본주의 경제의 범세계화에 따른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이탈리아와 미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더 나아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사한 경향의 노동자 정체성과 노동운동을 낳았다. 영국식 개량적 노동운동을 펼치는 AFL(American Federation of Labour, 미국노동연맹)의 헤게모니에 맞서 생디칼리즘을 표방한 IWW가 굳건하게 자리잡은 데에는 유럽 대륙,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²⁷⁾ 마찬가지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생디칼리즘의 대두는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주해 온 급진적 노동자들의 대규모 정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과 정착이 생디칼리즘 운동의 저변을 두텁게 해 주었던 것이다.

III. 생디칼리즘의 이론과 실제

1. 생디칼리즘의 이념적 기반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불신, 노동조직의 자율성, 직접행동, 분권형 연방주의 따위를 내세우는 생디칼리즘은 그 계보나 사상에서 ана키즘의 연장선

26) 각국 노동조합들의 국제기구 설립 운동에 대해서는 S. Milner, *The Dilemmas of Internationalism: French Syndicalism and the International Labor Movement 1900-1914*(Berg, 1990)을 참조하라.

27) G. Donna & O. Fraser(ed.), *Italian Workers of the World: Labor Migration and the Formation of Multiethnic States*(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1); G. Donna & F. Iacovetta, *Women-Gender and Transnational Lives: Italian Workers of the World*(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2).

으로 일컬어지곤 한다. 1864년에 제1인터내셔널이 탄생한 이후부터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마르크시즘과 ана키즘 사이에 끝없는 대립과 논쟁이 벌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마르크시즘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정치권력의 장악을 구체적인 투쟁 전략으로 내세운 데 반해서, ана키즘은 정치 무대를 벗어난 생산 현장에서의 투쟁, 즉 노동자들의 직접 행동과 봉기를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창했다.

생디칼리즘의 진원지 프랑스는 ‘아나키즘의 아버지’ 프루동(P.-J. Proudhon)의 고향이자 ана키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진 지역 중 하나였다. 19세기말에 ана키스트들의 테러 활동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 강화되고 조직이 와해되자 이들 중 상당수는 노동조합을 새로운 무대로 삼아 합법적 투쟁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페르낭 펠루티에와 에밀 푸제는 ана키스트 운동가들을 노동조합으로 이끌고 ана키즘 사상을 생디칼리즘에 접목시키는데 앞장섰다.²⁸⁾ 이브토와 델살 등 CGT를 이끈 이론가들 역시 ана키즘의 토양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적인 생디칼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CGT의 지도자들이 모두 ана키스트였던 것은 아니며, 20세기에 접어들어 CGT의 규모와 세력이 커지는 만큼 ана키즘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CGT는 1906년에 유명한 ‘아미앵 헌장(charte d'Amiens)’에서 “CGT에 가맹한 조직들은 노동 단체로서, 정당들(partis) 및 파벌들(sectes)의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다.”라고 선언했다. 아미앵 헌장은 사회주의 정당들뿐만 아니라 ана키즘 세력(‘파벌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독자적인 생디칼리즘 운동을 천명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²⁹⁾ 프랑스에서 생디칼리즘은 ана키즘을 모태로 삼아 출발했지만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해가면서 ана키즘의 잔재를 조금씩 털어내기 시작했다. ана키즘에서 진정한 의미의 생디칼리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노동 현장과의 접촉을 통해 이념적 탈각과 쇄신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이다.

아나키즘의 영향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등 이베리아 반도와 이탈리아이다.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농업국가로 머물러 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이탈리아에는 19세기 말에 제1인터내셔널에서 마

28) J. Maitron, *Histoire du mouvement anarchiste*, t.I(des origines à 1914)(Gallimard, 1992), pp. 273-274.

29) 아미앵 헌장의 의의에 대해서는 이용재, 「아미앵 헌장과 혁명적 생디칼리즘」, 『서양사연구』 제29집(2002. 2)을 참조하라.

르크스와 대립각을 세우던 러시아 아나키스트 바쿠닌(M. Bakunin)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침투했다. 에스파냐는 “대중 노동조합 운동이 소수의 의식 있는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혁명의 길에 들어선 유일한 장면, 원래 그대로의 아나르코생디칼리즘 운동이 결실을 맺은 땅”이었다.³⁰⁾ 1911년에 탄생한 CNT에서는 노동조합을 혁명과 사회 재조직의 주체로 삼는 순수 생디칼리스트들과 정치적 총파업과 혁명 봉기를 우선시하는 아나키스트들 사이에 내부 긴장과 알력이 일었다. 1927년에 이베리아 아나키스트 연맹(Federación Anarquista Ibérica, FAI)을 결성한 아나키스트들이 1932년부터 실질적으로 CNT의 지도부를 장악하자 노선 투쟁에서 밀려난 ‘정치적’ 생디칼리스트들은 CNT를 이탈해서 생디칼리스트 당(Partido Sindicalista)이라는 군소 조직을 결성했으며 곧 몰락했다. 아나키스트들과 ‘정치적’ 생디칼리스트들 사이의 분열은 이탈리아에서도 나타났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USI를 이끈 아르만도 보르기(A. Borghi) 등 아나키스트 계열의 지도부는 ‘참전 반대’를 굽히지 않았으나 에드문도 로소니(E. Rossoni)를 주축으로 한 소위 ‘민족’ 생디칼리스트들은 ‘전쟁 개입’을 주장했으며, 결국 1918년에 USI를 탈퇴해서 UIL(*Unione Italiana del Lavoro*, 이탈리아 노동연합)을 결성했다. 신설 UIL의 노조원 수는 USI의 절반인 15만 명에 육박했지만, 아나키스트들은 USI의 지도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이탈리아에서도 에스파냐와 마찬가지로 아나키즘이 생디칼리즘 운동의 중추를 이루었던 것이다.

반면에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지는 아나키즘이 널리 침투하지 못한 ‘사회민주주의의 토양’이었으며, 북유럽의 생디칼리즘 운동은 아나키즘의 영향을 덜 받은 만큼 마르크시즘을 향해 열려 있기도 했다. 북유럽의 생디칼리스트들은 각각 자국에서 마르크시즘의 적자임을 자처하는 사회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의회사회주의 노선을 거부하면서 사회주의 정당들의 개량주의에 물들지 않은 진정한 마르크시즘을 복원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네덜란드의 생디칼리즘 기구 NAS를 창설한 크리스티안 코르벨리센은 국제적 명성을 지닌 마르크시즘 이론가이기도 했다.³¹⁾

마르크시즘의 영향은 아나키즘의 상대적 취약지인 영국과 미국에서도 입증

30) D. Miller, *Anarchism*(Dent, 1984), p. 137.

31) H. Wedman, “Christian Cornelissen: Marxism and Revolutionary Syndicalism,” Marcel van der Linden(ed.), *Die Rezeption der Marxschen Theorie in den Niederlanden*(Karl-Marx-Haus, 1992), p. 92.

된다. IWW의 생디칼리즘 문건에 나타나는 자본주의 경제논리 분석이나 계급투쟁 원리에 대한 천명에는 마르크시즘의 색채가 강하게 배어 있다. IWW가 공식노선으로 내세운 산업노조주의는 노조연맹체의 권력집중 구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아나키즘의 연방주의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IWW의 지도자들은 노동운동의 자율성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정당과의 연계를 유지했다. 윌리엄 헤이우드는 미국사회당(Socialist Party of America)에 당적을 유지했으며, 다니엘 드 레옹(D. de Léon)은 사회주의노동당(Socialist Labour Party)의 주요 간부 중 하나였다.³²⁾ 영국의 톰 만 역시 생디칼리즘 운동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직전에 독립노동당(Independent Labour Party)의 서기장을 맡았으며,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한 직후인 1920년에는 단명한 영국공산당(Communist Party of Great Britain)의 창립에도 관여하였다.³³⁾

이렇게 볼 때, 프랑스를 가운데에 놓고 평가할 경우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생디칼리즘 운동에는 아나키즘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독일, 덴마크, 스웨덴 더 나아가 영국과 미국에서는 아나키즘 못지않게 마르크시즘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생디칼리즘 운동은 때로는 마르크시즘에서 때로는 아나키즘에서 인적 자원과 사상적 자양분을 취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자국의 고유한 정치 지형과 노동운동의 여건에 접목시키면서 일정한 공통분모를 찾아낸 결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생디칼리즘은 특정 이념에 힘입은 ‘이론’이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얻은 구체적인 ‘경험’의 소산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프랑스의 생디칼리스트들은 일단 노동 현장에 발을 내딛은 후 노동운동이란 위로부터 주어진 어떤 ‘이론 체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경험 세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했다. 아나키즘과 생디칼리즘의 접목을 시도한 펠루티에는 “노동 조직들은 이론을 경멸한다. 구체적인 경험, 노동자들의 현장 경험이 어떤 체계적 설명보다 우선한다”라며 아나키즘이 노동자들의 경험을 통해 여과될 때 비로소 생디칼리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난다

32) P. F. Brissenden, *The IWW: The Study of American Syndicalism*(Columbia University, 1919), pp. 137-40.

33) T. Mann, *Tom Mann's Memoirs*, p. 67.

는 것을 강조했다.³⁴⁾ 1906년 아미앵현장 이후 생디칼리즘이 자기정체성을 다져나감에 따라 생디칼리즘의 경험적 차원은 더욱 강조된다. CGT 서기장 그뤼피엘은 생디칼리즘의 ‘체계 부재’를 힐난하는 정치적 사회주의자들의 공세에 맞서 생디칼리즘의 진정한 면모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고 밝혔다.

노동운동은 이러저런 인물들보다는 사건들 자체에 의해 단련된 오랜 실천의 결과이다. 노동자의 행동은 태양 주변을 맴도는 지구와 같다. 중력은 지구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운동성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행동이 발전하고 진전을 이루는 것은 그날그날의 움직임 속에서이다. 따라서 내가 볼 때 이 진전은 어떤 학문이나 이론의 표현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고의 소산이다.³⁵⁾

생디칼리스트들이 구상한 생디칼리즘의 궁극적 요체는 그것이 아나키즘이든 마르크시즘이든 어떤 엘리트 이론가들의 영향에 힘입은 것이기에 앞서 노동자들의 일상 경험에서 우러나는 ‘노동자 사회주의(socialisme ouvrier)’라는 데에 있었다. 생디칼리즘은 계급투쟁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영국식 트레드유니언리즘과 구별되며, 노동자들의 자율적 조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일식 의회사회주의와 구별되고, 이데올로기를 경멸하고 실천적인 성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아나키즘과 구별되는, 노동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싹튼 노동자들의 사회주의라는 것이다.³⁶⁾

2. 생디칼리즘의 영향력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각국의 생디칼리즘 운동이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급격히 성장했으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생디칼리즘의 종주국 프랑스와 내전 직전의 에스파냐를 예외로 한다면 대개 자국 노동운동권에서 ‘소수파’로 머물렀다는 점이다. 생디칼리즘은 혁명과 전쟁의 기로에서 계급투쟁이 침체화된 시기에 개량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전투적 노동운동을 기치로 도전장을 던졌으나 이미 굳건한 기반을 다진 기성 노동조직의 장벽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

34) F. Pelloutier, *Histoire des Bourses du Travail*(Gordon & Breach, 1971[1902]), p. 133.

35) V. Griffuelhes, *L'Action syndicaliste*(brochure de la CGT, 1907), p. 4.

36) H. Lagardelle, “Les caractères généraux du syndicalisme,” *Le Socialisme ouvrier*(V. Giard & E. Brière, 1911), p. 325.

었다. 각국별 생디칼리즘 노조연합과 기성 ‘다수파’ 노조연합의 가맹 노조원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다.

<생디칼리즘 노조기구와 다수파 노조기구의 조합원수 비교>³⁷⁾

국가	생디칼리즘 노조기구	노조원수	년도	경쟁 노조기구 (사회민주주의/개량주의)	노조원수
프랑스	노동총동맹 CGT	158,000	1904		
		358,564	1909		
		687,463	1912		
		296,222	1913		
		41,645	1915		
		1,634,673	1920		
		773,140	1921		
이탈리아	이탈리아노조연합 USI	101,729	1907	노동총동맹 CGL 1906 <i>Confederazione Generale del Lavoro</i>	190,422
		305,000	1913		327,315
		100,000	1919		1,159,062
			1922		401,054
에스파냐	전국노동동맹 CNT	29,315	1911	노동자일반연합 UGT <i>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i> 1888	80,000
			1914		121,553
		707,310	1919		160,000
		548,301	1931		
		489,668	1936		
1,500,000	1937	1,500,000			
영국	자체 노조 부재, 기성노조 침투전략	활동가 수천(?)	1910	노동조합대회 TUG 1868 <i>Trade Union Congress</i>	2,446,342
			1914		3,918,809

37) 이 도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M. Van der Linden & W. Thorpe(ed.), *Revolutionary Syndicalism*; P. Brissenden, *The IWW: The Study of American Syndicalism*; Horowitz D., *The Italian Labor Movement*(Harvard Univ. Press, 1963); G. Bain, *Profils of Union Growth*(Basil Blackwell, 1980); S.B. Webbs, *The History of Trade Unionism*(Kessinger Publishers, 1920); *Comptes rendus du congrès national corporatif, 7e~16e congrès de la CGT(1902-1919)*.

국가	생디칼리즘 노조기구	노조원수	년도	경쟁 노조기구 (사회민주주의/개량주의)	노조원수
독일	노동조합자유연 맹 FVdG	18,353	1901	자유노조 FG 1892 <i>Freie Gewerkschaften</i>	619,556
		17,633	1907		1,865,506
		6,000	1914		2,200,000
	독일자유노동자 연합 FAUD 1919	111,675	1919	전독일노조연합 ADGB <i>Allgemein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i> 1919	7,337,477
		71,633	1921		7,751,589
		25,000	1925		4,182,445
		9,584	1930		4,716,569
네덜 란드	전국노동자 사무국 NAS	18,700	1895	네덜란드노조연맹 NVV <i>Nederlandsch Verbond van Aakvereenigingen</i> 1906	19,000
		3,230	1906		87,598
		9,242	1915		247,748
		51,570	1920		251,487
		17,361	1930		319,099
10,330	1940				
스웨덴	스웨덴 중앙노동조직 SAC	1,175	1911	스웨덴노동조합동맹 LO <i>Landsorganisationen</i> 1898	112,400
		4,518	1914		142,800
		24,103	1919		365,100
		37,205	1925		441,700
		28,150	1930		610,900
35,494	1935	710,400			
미국	세계산업노동자 IWW	23,219	1905	미국노동연맹 AFL 1886 <i>American federation of Labor</i>	1,682,000
		5,931	1907		1,906,000
		5,379	1908		2,138,000
		3,719	1909		2,573,000
		4,330	1911		
		40,000	1916		
120,000	1917				
캐나다	단일거대노조 OBU	50,000	1919	캐나다노동대회 TLC <i>Trade & Labor Congress of Canada</i> 1883	164,883
		5,000	1921		140,195
		1,600	1927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중·북부 유럽에서 생디칼리즘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수는 10,000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네덜란드의

생디칼리즘 노조 NAS는 1906년에 사회당의 후견 아래 성립한 경쟁 노조기구 NVV에 밀려 줄곧 군소조직으로 머물렀다. 1910년에 NAS의 노조원수는 NVV의 10%에 머물렀으며, 최다 노조원을 기록한 1920년에도 NAS는 NVV의 20%에 지나지 않는다. NAS의 노조원수는 1920년에 최고 5만 명을 넘어섰으나, 같은 해에 NVV는 25만에 육박했던 것이다. 1911년에서 1925년 사이 스웨덴의 생디칼리즘 기구 SAC의 노조원수는 무려 30배 증가한 반면, 사회민주당 계열의 다수파 노조 LO는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를 절대 수치로 보면 SAC의 노조원수는 전성기인 1925년에 LO의 8% 수준인 3만 7천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사회민주당(SPD)이 원내 다수당으로 부상한 독일은 사회민주주의 계열 노동운동의 아성이었다. 사회민주당의 후원을 받는 노조연맹체 FG는 1914년에 이미 노조원수 200만을 넘어섰다. 반면에 1908년 이후 내부 분규를 겪은 생디칼리즘 노조 FVdG는 노조원수가 6천 명으로 격감했다.

반면에 이탈리아와 에스파냐 등 라틴계 국가의 생디칼리즘은 사회민주당 계열의 경쟁 노조연합에 맞불을 놓을 정도로 비교적 굳건한 조직 기반을 다졌다. 이탈리아의 생디칼리즘 기구 USI는 창립 1년 후인 1913년 말에 10만 노조원을 모으면서 이탈리아 사회당의 후견 아래 30만 노조원을 거느린 다수파 조직 CGL을 압박했다. USI는 제1차 세계대전 후 혁명 분위기가 고조된 1919년에 최고 30만 노조원을 모았으나 3년 후 무솔리니가 집권하면서 강제로 파시즘 조직에 흡수·통합되었다. 이탈리아 생디칼리즘은 노조 규모로 볼 때 늘 CGL의 1/3에 달하는 강력한 대안 세력이었다.³⁸⁾ 에스파냐의 CNT는 1911년 탄생 직후 3만에 달하는 조합원을 모으면서 8만 조합원을 거느린 사회민주당 계열의 UGT와 대립했다. 일찍부터 아나키즘 운동이 강력하게 뿌리내린 에스파냐에서 CNT는 노동자들에게 때로는 UGT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1919년에 70만 노조원을 자랑하며 한때 UGT를 압도한 CNT는 1936년 내란기에 무려 150만 노조원을 모으며 UGT와 함께 프랑코 군부의 파시즘 세력에 맞선 에스파냐 노동운동의 양대 산맥을 형성했다.

1905년에 2만3천 노조원으로 출발한 미국의 IWW는 출범 초기부터 사회주의 정당과의 관계정립 문제를 놓고 생디칼리스트와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38) Levy는 USI가 노조원 수에서 CGL의 절반에 육박했다고 평가한다. C. Levy, "Currents of Italian Syndicalism before 1926,"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n. 45(2000), p. 219.

노선 투쟁을 겪으면서 줄곧 노조원수가 감소했다. 전쟁 후 세력을 회복한 IWW는 1917년에 노조원수 12만을 기록하고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는 동부 산업지역 숙련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개량주의 노동운동의 아성으로 군림하고 있는 AFL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수치였다. IWW의 후견 아래 1919년에 창립한 캐나다의 OBU 역시 ‘단일 거대노조(One Big Union)’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미국 AFL의 후견을 받는 TLC의 맞상대가 되지 못했다. 반면에 영국은 생디칼리즘 운동이 자체의 노동조합을 갖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영국의 생디칼리스트들은 자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개량주의 노조들에 침투해서 생디칼리즘 운동을 전파하고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른바 ‘내부 와해 공작(Boring from within)’을 내세웠으며, 이를 위한 선전기구가 1910년에 톰 만이 세운 ISEL이었다. ISEL이 월간으로 발행한 「생디칼리스트(The Syndicalist)가 최고 2만부의 발행부수를 기록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그 영향력을 짐작해 볼 따름이며, 현지 노동조합에 침투해서 활약하는 생디칼리스트 운동가들이 대략 수천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³⁹⁾

CGT는 프랑스에서 유일한 전국 단위 노조연합체였다. 프랑스는 생디칼리즘 운동이 그에 맞설만한 경쟁 조직이 없는 가운데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유일한 사례이다. CGT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70만에 육박하는 조합원수를 자랑하며 생디칼리즘 운동의 국제적 ‘리더’ 역할을 자부했다. 하지만 CGT에 가맹한 모든 산하 연맹들이 지도부의 노선을 일률적으로 따랐던 것은 아니다. ‘혁명파(Révolutionnaires)’로 분류되는 건축공연맹과 금속공연맹이 CGT의 혁명적 생디칼리즘 노선을 견인하는 버팀목이었던 반면, 섬유공연맹과 서적연맹 등 ‘개량파(Réformistes)’ 연맹들은 영국식의 개량주의 노선에 가까웠다.⁴⁰⁾ CGT 지도부는, 결의안 투표방식을 노조별 투표에서 노조원수에 따른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며 주도권 장악을 노리는 ‘개량파’의 공세를 막아내며 적어도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혁명적 생디칼리즘 노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 요컨대 CGT의 ‘다수파’인 혁명적 생디칼리스트들은 수적으로는 ‘소수파’였던 셈이다. 더구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프랑스의 노조가입률이 10%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세기

39) R. Darlington, *Syndicalism and the Transition to Communism*, p. 147.

40) F. Challaye,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et syndicalisme réformiste*(Félix Alcan, 1909), pp. 131-133.

초에 CGT가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일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⁴¹⁾

하지만 가맹 노조원의 비중이 생디칼리즘 운동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을 듯하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격동기에 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해서 꾸준히 활동하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생디칼리스트들의 우선 관심은 조합원수 증대를 통한 세력과시보다는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닌 활동가들의 선전과 투쟁으로 향했다. 에밀 푸제 등 CGT 지도부가 볼 때, 생디칼리즘의 추동력은 의식 없는 다수 노동대중에게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활동적 소수(minorité agissante)”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⁴²⁾

노조원 규모와 영향력 사이의 불균형은 IWW의 사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IWW는 주로 미국 서부에서 광산, 철도부설, 토목공사 현장 일하는 미숙련 노동자, 뜨내기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 활동을 벌였다. 공사판을 찾아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단순노동자들 노조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빈번한 가입과 탈퇴에 따른 조합원 변동이 극심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적어도 한번 이상 IWW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 수는 어렵잡아 2백~3백 만 명에 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중 백만 명 이상이 IWW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⁴³⁾ 생디칼리스트들은 비록 소수파로 머물렀지만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시기에 파업과 사보타주 등 직접행동의 선봉에 서면서 ‘말없는 다수’를 이끄는 ‘활동적 소수’로서 때로는 개량주의나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경쟁 조직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41) 프랑스의 노조가입률은 유럽 최하위 수준이다. 1913년 현재 유럽 주요국의 노조가입률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89%, 영국·독일 22%, 덴마크 30%, 네덜란드 20%, 벨기에·스위스 14%, 이탈리아 9%. P. Louis, “L'état présent du syndicalisme mondiale,” *Le Musée social: mémoires et document*(1913), p. 170.

42) E. Pouget, *La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Marcel Rivière, 1908), p. 12.

43) M. Dubofsky, *Industrialism and the American Workers*(AHM Publishing, 1975), p. 103.

IV. 생디칼리즘의 조직과 구성

1. ‘직종’과 ‘산업’

생디칼리즘 운동은 국가마다 조직 구조와 노조 구성 방식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산업 구조 및 노동운동의 전통과 일정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19세기말의 산업화에 따른 자본과 기업의 집중은 전통 직종의 와해와 산업구조의 재편성을 몰고 왔으며, 이에 따라 노동 조직들도 지역별 분야별 분산을 벗어나서 산업 단위로 통합 또는 재구성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19세기 초·중반에 일찍 산업화 과정을 겪고 숙련노동자 중심의 오랜 노동운동 전통을 지닌 나라들, 즉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또는 산업화에 뒤처진 에스파냐 등에서는 직종별 노조구성이 끈질긴 활력을 발휘한 반면, 19세기 후반에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산업 고도화와 기업 집중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산업별 노조 통합에 대한 요구와 성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 듯하다.

미국의 IWW는 당시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쟁 조직 AFL이 직종별 노조(craft union)로 결성된 숙련노동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산업의 모든 노동자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산업별 노조(industrial union)를 조직과 투쟁의 기본단위로 삼고자 했다. 자본의 집중이 고도화되고 기업들이 산업 단위로 재편성된 만큼, 노동자들도 직종별 분산 구도를 탈피해서 산업 단위로 투쟁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로 산업조합주의(Industrial Unionism)는 IWW가 1906년 창립 선언문에서 내건 조직의 기본원칙이었다.

어떤 한 부문에서 파업이나 공장폐쇄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한 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산업들의 구성원들이 작업을 중단하는, 따라서 한 산업의 손실이 모든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할 때에, 비로소 ... 노동자계급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다.⁴⁴⁾

국민 경제를 13개 산업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마다 전국 규모의 단일 산업

44) “Preamble of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1906),” J. Kornbluh(ed.), *Rebel Voices: An IWW Anthology*(Charles H. Kerr Publishing Company, 1998), p. 12.

노조 연합체를 결성한 후 각 지역에 편재한 단위 산업별 노조들을 가입시킨다는 것이 IWW의 조직 청사진이었다. IWW의 산업조합주의는 더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 후 모든 산업들을 단 하나의 거대 노조 안에 결집하고자 하는 단일거대노조주의(One Big Unionism)로 확대되었으며, 인접한 캐나다뿐만 아니라 독일의 생디칼리즘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1919년에 성립한 캐나다의 OBU는 결과적으로 “생디칼리즘도 산업조합주의도 단일거대노조주의도 아닌 ... 잡종 기구”⁴⁵⁾로 머물기는 했지만, 조직 계보로 볼 때 IWW가 추진한 산업조합주의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도 생디칼리스트들은 IWW의 영향을 받아 산업조합주의를 선전했으나 수공업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기성 노동조직들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ISEL은 산업별 노조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직종별 노조들을 산업별 연맹체로 병합(amalgamation)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생디칼리스트들의 선전활동에 힘입어 1910년에 기존 3개 조직을 병합한 전국운송노동자연맹(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이 탄생하고, 1913년에 전국철도원연합(National Union of Railwaymen)이 기존 3개 조직의 통합기구로 출범했다. 이로써 이미 1888년에 성립한 영국광부연맹(Miners' Federation of Great Britain)을 포함하면, 광산, 철도, 운송 분야에서 적어도 연맹체 단위에서는 산업별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이다. 하지만 산업별 통합운동은 지역의 단위 노조들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며, 연맹체 단위의 통합도 큰 진전을 보기 힘들었다.

프랑스에서 20세기 초까지 단위 노조와 노조연맹들은 주로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었다. 직종별 조직들의 난립은 1906년 현재 CGT에 가입한 연맹이 무려 61개에 달했다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⁴⁶⁾ 피혁 산업에서 8개 직종별 연맹이, 건축업에서 5개 직종별 연맹이, 금속업에서는 7개 직종별 연맹이 경쟁적으로 난립하고 있었다. CGT는 1906년에 개최된 전국 노동대회에서 “앞으로 CGT는 직종별 연맹이 아니라 산별 연맹만으로 구성될 것”⁴⁷⁾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산업별 조직 원리를 공식 노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피혁, 건축, 금속, 화학 산업 등에서 연맹체 통합이 성공리에 추진되었다. 하지만 제1차

45) D. J. Bercuson, “Syndicalism Sidetracked: Canada's One Big Union,” M. Van der Linden & W. Thorpe(ed.), *Revolutionary Syndicalism*, p. 221.

46) *Compte rendu du 15e congrès national corporatif*(1906), p. 24에서 산출.

47) *Compte rendu du 15e congrès national corporatif*(1906), p. 187.

세계대전에서의 참전 문제를 두고 노동운동권이 내홍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는 더 이상 전전을 보지 못했으며, CGT에 가입한 연맹수는 1914년에도 여전히 48개에 달했다.⁴⁸⁾ 연맹 통합운동은 미완으로 그쳤으며 걸으려는 산업별 조직을 표방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직종별 분립구도로 머물렀다. 프랑스 생디칼리스트들에게 산업조합주의 전략은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영국의 동료들에게서 만큼 그리 긴박한 현안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다.⁴⁹⁾

사정은 이탈리아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창립 1년 만에 10만 조합원을 모은 USI는 미숙련 단순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발판으로 산업별 노조 통합을 추진했다. 거점 지역별 산업노조 조직 노선은 1913년 전국 대회에서 지역 노조의 자율성을 고집하는 아나키스트들의 공세에 밀려 가까스로 통과되었다(찬성 56%, 반대 33%).⁵⁰⁾ 이로써 밀라노를 거점으로 한 전국 금속노조, 볼로냐를 거점으로 한 전국 건축-가구노조, 모데나를 거점으로 한 농업 노조가 설립되었으나, 금속노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더구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참전 문제를 놓고 USI가 내부 분열의 기로에 서자 노조 통합 문제는 훗날로 미루어졌다.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산별노조주의는 중도 폐기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2. 사회적 구성

생디칼리즘이 모든 직종과 산업의 노동자들에게서 골고루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산업과 직종이 생디칼리즘 운동의 주력군을 형성했는가 하는 문제는 생디칼리즘의 성격과 의미를 규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일반적인 평가는 생디칼리즘 운동이 대단위 공장에 고용된 산업노동자들보다는 주로 19세기 말의 산업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수공업자, 농업노동자, 막노동자 등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스(B. Moss)는 CGT의 주축이 산업화 과정에서 자율적 생산기반을 잃고 소규모 작업장에 임노동자로 고용된 수공업자들이었으며, 따라서 혁명적 생디칼

48) *Compte rendu de la conférence des Fédérations nationales, Bourses du Travail et des Unions des Syndicats(1917)*, pp. 27-30에서 산출.

49) G.D. H. Cole, *The World of Labor, A Discussion of the Present and Future of Trade Unionism*(G. Bell & Sons Ltd, 1920), p. 111.

50) W. Gianinazzi, "Le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en Italie(1904-1925)," *Mil Neuf Cent, revue d'histoire intellectuelle*, n. 24(2006), p. 111.

리즘은 이른바 '숙련노동자들의 사회주의(socialism of skilled workers)'였다고 주장한다.⁵¹⁾ IWW에 대한 대개의 연구는 IWW의 선전활동이 주로 미국 서부의 유랑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동부 지역 공업노동자들에게서는 별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한다.⁵²⁾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와 에스파냐의 생디칼리즘 연구사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토지를 상실한 농업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는 상례적인 설명이 뒤따른다. 요컨대 당시 개량주의나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노동조직이 갈수록 수적 비중이 증대하는 산업프로레타리아층을 주력으로 삼아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반면에, 산업화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디칼리즘은 고도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과도기적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국 생디칼리즘 조직의 사회적 구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첫 인상은 다른 복잡한 지형이 확인된다. 각국에서 생디칼리즘 운동에 가담한 주요 직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디칼리즘 운동의 주축을 이룬 주요 직종들〉⁵³⁾

직 종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농업노동자 Land Labourers		○	○	○			○	○	○	
광부 Miners	○				○	○		○	○	○

51) B. Moss, *The Origins of the French Labor Movement: The Socialism of Skilled Workers 1830-1914*(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pp. 11-13.

52) 특히 J.R. Conlin, *Bread and Roses Too: Studies of Wobblies*, pp. 68-70.

53) 이 자료는 다음의 연구서들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M. Van der Linden & W. Thorpe(ed.), *Revolutionary Syndicalism*; M. van der Linden & J. Rojahn(ed.), *Formation of Labour Movements 1870-1914, An International Perspective*(Brill Academic Publishers, 1990); B. Holton, *British Syndicalism, 1900-1914*(Pluto Press, 1976); A. Bar, *Syndicalism and Revolution in Spain: the Ideology and the Syndical Practice of the CNT in the period 1915-1919*(Gordon Press, 1992); P. Brissenden, *The IWW: A study of American Syndicalism*.

직 종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캐나다
식자공 Typographers	○		○	○		○				
제화공 · 피혁공 Shoemakers	○		○	○						
섬유공 · 재단공 Textile, Tailors			○			○	○		○	
소목공 Cabinet Makers				○			○			
금속공 · 기계공 Metal Workers	○	○	○		○	○	○	○	○	
건축공 Construction	○	○	○	○	○	○	○	○	○	
운송 · 철도 · 부두하역 Transport, Railway Dock Workers				○	○	○	○		○	○
선원 Seamen					○	○	○			
벌목공 Lumberjacks						○		○	○	○
공공 서비스 Public Employees	○						○			

일반적으로 생디칼리즘의 지지 기반을 형성한 노동자 집단은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⁴⁾ 첫째는 조업의 성격상 고용주와 작업장 심지어 거주지가 수시로 뒤바뀌에 따라 임시 고용, 계절적 노동, 하도급 계약 등 상시적인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다. 농업노동자, 벌목꾼, 건축노동자, 부두하역노동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는 조업 환경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숙련노동의 지위가 위협받거나 고용의 불안에 노출된 노동자들이다. 광부, 철도노동자, 공장노동자 등이 이

54) M. Van der Linden & W. Thorpe, "Essor et déclin du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p. 15.

부류에 속한다.

알려진 대로 미국의 IWW는 주로 농업, 벌목, 건축, 광산 등 주거와 고용이 불안한 미숙련 단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서부 지역에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1893년에 탄생한 서부 광부 연맹(Western Federation of Miners)이 1905년에 IWW를 창립하는 데 주역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광부들은 미국 생디칼리즘의 대명사이기도 했다. 하지만 IWW의 활약은 서부 지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1912년과 1913년에 IWW는 로렌스 섬유파업(Lawrence textile strike)과 패터슨 실크파업(Paterson silk strike)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파업을 주도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로렌스와 패터슨에서의 파업 승리는 IWW가 대규모 섬유 회사에 고용된 공장노동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⁵⁵⁾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탈숙련화에 대한 저항, 즉 숙련노동자들의 운동으로서의 생디칼리즘의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물론 프랑스와 영국에서이다. 일찍부터 CGT에 가입한 금속업과 피혁업 분야의 직종 조합들은 숙련성의 상실을 우려해서 산업별 노조로의 통합 움직임에는 거부감을 보였으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과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해 고용주에 맞선 직접행동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영국에서 광부연맹, 철도원연합, 운송노동자연맹이 생디칼리즘 운동의 삼각축을 이룬 것은 이들 세 업종에서 신기술의 도입에 대한 숙련노동자들의 위기감이 가장 컸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1900년 이후 서부 항구 도시의 부두하역노동자와 선박노동자, 남부 포도농업 지대의 농업노동자 등 미숙련 단순 직종들이 널리 CGT에 들어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혁명파' 연맹의 선봉적인 건축공연맹에서 고용주에 맞서 가장 비타협적인 투쟁을 펼치고 가장 높은 조합가입률을 자랑했던 것은 파리의 지하철 공사판에서 고용된 미숙련 토목공들(terrassiers)이었다.⁵⁶⁾

이탈리아에서 USI의 주축을 이룬 것은 주로 농업노동자들로 알려져 있다.

55) M. Dubofsky, *We Shall Be All: A History of the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p. 27.

56) 건축공연맹의 두 기둥은 파리 석공조합과 토목공조합이었다. 숙련 직종인 석공조합의 조합원수는 1907년에서 1914년 사이에 9,714명에서 3,583명으로 줄었으나, 미숙련 토목공조합은 같은 기간에 3,000명에서 6,676명으로 늘었다. 이용재, 「직능이나 산업이냐: 프랑스 건축노동자들의 노조정체성 연구(1907-1914)」, 『서양사론』 제67호(2000. 12), 151-152쪽.

하지만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생디칼리즘의 주력군을 이룬 농업노동자들은 남부의 전통 농업 지역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농업 경영에 의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의 노동자들이었다. 농업노동자들은 1919년 현재 USI 가맹 노조원 약 30만 명 중 1/3 정도를, 건축노동자들은 1/6 정도를 차지했다.⁵⁷⁾ 그리고 생디칼리즘은 비록 밀라노, 토리노, 로마 등 대도시에서는 경쟁 조직인 CGL에 밀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베로나, 사보나, 라스페치아 등 중소 도시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USI에 가맹된 금속공연맹은 3만 조합원을 자랑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중소 도시의 공장 지역에 고용된 숙련노동자들이었다.⁵⁸⁾ 산업화에 뒤처지고 아나키즘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에스파냐에서 생디칼리즘은 농촌을 배경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안달루시아, 아라곤, 카스티야 등 농촌 지역이 아나키즘의 근거지 구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CNT는 노조 규율과 산업 투쟁에 낯선 농촌 지역에서 조직적 기반을 갖추기 힘들었다. ‘농촌 생디칼리즘(rural syndicalism)’이라는 일반적인 인상과는 달리 CNT는 “공업적 성격을 지닌 노동운동”⁵⁹⁾이었으며 대도시의 중소 규모 작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주로 끌어들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생디칼리즘 운동의 사회적 구성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건축, 운송, 광산 등이 생디칼리즘의 주력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금속과 섬유 등 대규모 공장생산 업종도 만만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디칼리즘은 단순히 산업화의 거센 파고에 밀려 위기에 처한 수공업자, 숙련노동자, 농업노동자, 일용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생디칼리즘은 비록 개량주의나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경쟁 조직에 뒤처지긴 했지만 산업 시대 공장노동자들에게도 침투했으며, 각국의 산업 조건에 따라 숙련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숙련노동자들에게도 광범위한 호소력을 가졌다.⁶⁰⁾

57) M. Antonioli, “L’USI, le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italien,” M. Antonioli et al., *De l’Histoire du mouvement ouvrier révolutionnaire*, p. 178.

58) P. Spriano, *The Occupation of the Factories: Italy 1920*(Pluto Press, 1975), p. 69.

59) A. Bar, “The CNT: The Glory and Tragedy of Spanish Anarchosyndicalism,” M. Van der Linden & W. Thorpe(ed.), *Revolutionary Syndicalism*, pp. 133 -134.

60) R. Darlington, *Syndicalism and the Transition to Communism*, pp. 96, 104.

V. 맺 음 말

20세기 초반에 혁명적 생디칼리즘은 사회주의 정당과의 제휴를 거부하고 노동운동의 자율성을 복원하고자 했다. 생디칼리즘은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하고 생산자 중심의 사회를 열고자 하는 ‘노동자 사회주의’였다. 비록 원대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기는 했지만 생디칼리즘은 노동자계급의 자주성과 노동조합의 혁명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원대한 시도였다.

생디칼리즘은 20세기 초반에 범세계적인 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 노동운동이었다. 생디칼리즘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전에 그 발원지인 프랑스를 넘어서 남유럽과 북유럽으로 전파되었다. 미국 서부에서 싹튼 생디칼리즘은 인접한 캐나다와 라틴아메리카는 물론이고 멀리 오스트레일리아를 거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각국의 생디칼리즘 운동은 중주국 프랑스를 축으로 때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자국의 실정에 맞추어 고유한 색채를 내보이면서 전개되었다.

생디칼리즘은 중주국 프랑스에서 일찍부터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유럽이든 아메리카든 다른 나라들에서는 강력한 대안 세력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주류 노동운동의 높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소수와 운동으로 머물렀다. 생디칼리즘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1930년대에 접어들어 한편으로는 소비에트의 후견을 업은 공산주의와의 이념경쟁에서 밀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가혹한 탄압에 의해, 해체되거나 기성 노동조직에 흡수되는 길을 걸었다. 더구나 1940년대 이후 후기 산업 사회에 접어들어 노동운동이 제도권 안으로 흡수됨에 따라 생디칼리즘은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기존 노동운동의 대안 세력으로 등장한 생디칼리즘 운동은 사회주의 정당과의 거리두기, 노동조직의 자율성, 노동자들의 직접행동, 자본주의 임노동제의 철폐 등 기본 원칙을 공유했다. 반면에 생디칼리즘 운동은 각국 고유의 노동운동 전통이나 산업화와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내보이기도 했다. 특히 생디칼리즘 기구의 주축을 이룬 노조의 조직 구조와 노동자들의 사회적 구성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개별 국가의 사례를 떠나 종합적인 안목에서 살펴볼 때, 생디칼리즘 운동에는 나라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숙련노동자, 미숙련노동자, 농업노동자, 공장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적 구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생디칼리즘을 단순히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 낙오되거나 새로운 산업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주변적 노동자들에게 호소한 급진적 이념으로 치부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록 개량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통칭되는 주류 노동운동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생디칼리즘은 과거로 향한 만큼 미래로도 열려 있었던 것이다. (전북대 사학과)

<투고일자: 2009. 7. 5, 심사일자: 2009. 8. 12, 게재 확정일자: 2009. 8. 14>

주제어 : 생디칼리즘(Syndicalism), 산업조합주의(Industrial Unionism), 직종조합주의(Craft Unionism), 직접행동(Direct Action), 총파업(General Strike)

〈Résumé〉

Une vision comparative internationale sur le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Yong-Jae LEE

Cette étude comparative cherche à éclairer l'expansion et le déclin du mouvement syndicaliste révolutionnaire au tournant du XX^e siècle, et puis à analyser les similarités et les différences de ce courant du mouvement ouvrier international. Il s'agit d'une dizaine de pays occidentaux bien inspirés de l'esprit syndicaliste. A l'exception des Français, les syndicalistes révolutionnaires représentent invariablement des mouvements minoritaires. La masse constituée par l'ensemble des syndicalistes révolutionnaires paraît bien faible par rapport à leurs concurrents réformistes ou socio-démocrates. La CGT française offre un exemple phare du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au niveau international. Le déclin du syndicalisme révolutionnaire ne tient pas seulement à des conditions conjoncturelles comme la répression agressive par les pouvoirs publics, mais aussi à des changements structurels du régime capitaliste.

Les familles syndicalistes renferment non seulement des ressemblances, mais aussi des dissemblances, qui trouve leurs sources dans des contextes nationaux très divers. Il existe un ensemble de valeurs partagées, perçues par tous les mouvements syndicalistes: le mécontentement à l'égard des partis de gauche et des syndicats réformistes, la primauté et l'autonomie des organisations ouvrières, l'action directe(grève générale). Mais les divergences importantes portent sur l'esprit révolutionnaire, les stratégies organisationnelles, la composition sociale des ouvriers à syndiquer, etc. A première vue, la ligne de démarcation se place entre les anciens pays déjà industrialisés avec la tradition du mouvement ouvrier bien développé (Angleterre, France, Italie, etc.) et les pays récemment industrialisés après 1870(Etats-unis, Canada, Allemagne, etc.).

<Summary>**Revolutionary Syndicalism: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Yong-Jae LEE

This comparative study seeks to illuminate the rise and fall of the syndicalist movements in the first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to explain the resemblances and the differences of this international labour movement current. It deals with ten western countries on which the syndicalism had strong influence. With the well-known exception of French CGT, the revolutionary syndicalist organizations in Europe and America were all minority movements. Each of them was beleaguered by its own larger union opponents; Reformists or Social-Democrats. The French CGT took the lead of international syndicalist movement. The decline of the syndicalist movement is attributed not only to temporary historical factors such as state repression, but also to structural changes of capitalist regime.

The international syndicalist movements reveal the similarities as well as the disparities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national conditions. There are common values agreed by all the syndicalist movements: the discredit on the socialist political party and the reformist trade unions, the primacy and autonomy of the labor organizations, and the belief in the direct action (general strike). But they differ one from another in terms of the revolutionary conscienc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the social composition of union members and so forth. The principal division occurred between the older industrial nations where the labor movement had already been strongly developed (England, France, Italy, etc.) and the nations that industrialized after 1870 (USA, Canada, Germany, etc.).